이슈브리프 Issue Brief

NO. 23
2021.12.13.

인천시 청년고용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

민규량 /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배경과 목적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정책에서 중장년층의 은퇴 시기 연장 등에 따라 청년의 고용 축소 등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유발되는 가운데 미래의 정주인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청년 고용이 지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함
- 본 연구는 통계적 범위, 법적 범위보다 다소 넓은 인천시 청년 조례의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한 고용 관련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시 청년고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인천시의 청년 고용 정책 사업들과 매칭함으로써 향후 인천시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함

정책제안

- 인천시 청년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20대에서 높고 30대 이상에서 낮은 상황이나 세부적인 정책들은 주로 20대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에는 구직 및 취업 연령층이 높아지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어 정책 연령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실업률과 이직률이 전국 대비 높은 반면 안정적 고용을 위한 정책안 및 사업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인천시 청년의 경우 특히 장시간 근로-저임금 노동 환경에 처한 비율이 높으며 이는 타 지역으로 이직, 이사하는 주요 요인이 됨. 그러나 현재 인천시 사업은 미시적으로 청년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노동환경 개선, 노동생산성 증대 등 정책대안을 검토해야 함

주제어 : 청년, 고용, 인구구조, 일자리, 노동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1 연구개요

● 청년고용 이슈의 중요성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정책의 주요 계층이라는 점에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장년층의 은퇴 시기를 만 60세로 강제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
-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청년고용 축소 등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남재량, 2018; 한요셉, 2019) 청년고용이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 청년 일자리 제공은 미래의 인천시 정주 인구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

- 인천시 청년의 비중은 2020년에 전년 대비 0.5%p 감소함. 즉 이들이 여타 수도권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인천시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중요 과제임

● 연구의 범위

❑ 청년의 범위는 통계적 범위, 법적 범위로 구분되며 본 연구는 법적 범위의 범주에서 인천시 조례 기준을 적용하여 청년고용에 대하여 분석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를 통계작성 기준을 따라 분석하면 다양한 통계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인천시 정책대상자의 현황을 과소·과대 해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기본조례 기준인 19~39세를 대상으로 함

[그림 1] 청년의 통계적·법적 연령별 정의



자료: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통계자료설명, 3)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4)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검색일 : 2021년10월14일)

2 청년 고용 현황

⬢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 청년(19~39세) 고용률 및 실업률 모두 전국 대비 높음

- 인천시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은 2015년 66.8%로 전국 평균대비 1.8%p 높았고 2020년에는 67.3%로 전국 대비 2.9%p 높음
-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인구비율의 차이는 고용률보다 실업률 차이에서 나타남. 고용률은 전국평균과 0.1%p 차이로 매년 비슷했으나 실업률은 2015년 대비 2020년 크게 증가함
- 특히 인천시의 청년 실업률은 2015년과 2020년 모두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음

[표 1] 지역별 청년(19~39세) 경제활동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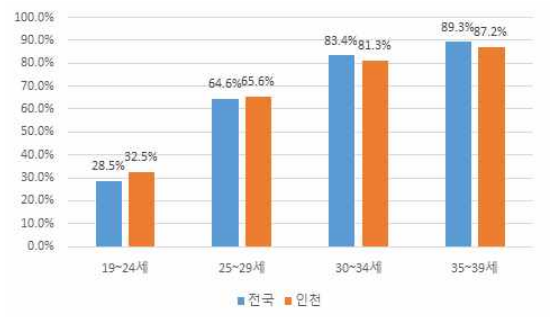
	2015년			2020년		
	경제활동 인구비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비율	고용률	실업률
전국평균	65.0%	62.0%	3.0%	64.4%	60.4%	4.1%
인천	**66.8%**	**62.1%**	**4.7%**	**67.3%**	**60.5%**	**6.8%**
서울	65.9%	61.9%	4.0%	66.9%	62.0%	4.9%
부산	62.6%	58.3%	4.3%	62.5%	56.7%	5.7%
대구	59.5%	56.5%	3.1%	59.7%	55.3%	4.4%
광주	59.7%	56.2%	3.4%	61.1%	57.2%	3.9%
대전	62.8%	61.5%	1.4%	62.1%	58.6%	3.5%
울산	64.8%	61.8%	3.0%	64.5%	58.6%	5.9%
경기	64.9%	61.6%	3.3%	65.8%	61.8%	4.1%
강원	67.2%	64.8%	2.5%	62.7%	59.7%	2.9%
충북	67.0%	64.8%	2.2%	65.2%	62.1%	3.0%
충남	63.7%	61.4%	2.3%	64.4%	61.3%	3.1%
전북	60.9%	59.5%	1.4%	59.5%	56.5%	3.0%
전남	67.6%	65.0%	2.6%	65.8%	63.4%	2.4%
경북	65.9%	63.1%	2.8%	62.4%	58.5%	3.9%
경남	65.9%	63.7%	2.3%	64.8%	60.1%	4.7%
제주	73.8%	71.4%	2.3%	66.7%	63.4%	3.3%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15년,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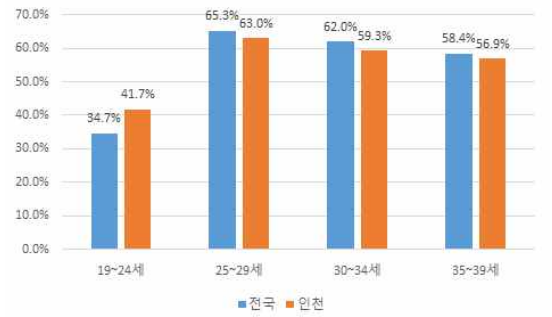
❑ 인천시 청년(19~39세) 고용률은 30세 이상에서 전국 대비 낮음

- 인천시 청년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29세 이하에서 전국 대비 높고 30세 이상에서 전국 대비 낮음
- 여성은 [그림 3]과 같이 24세 이하에서 높고 25세 이상에서 전국 대비 낮음
-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조사의 청년(15~29세) 데이터를 이용하면 인천시 정책대상 연령대의 청년고용률이 전반적으로 과대평가 됨을 시사함

[그림 2] 2020년 연령별 청년 남성 고용률



[그림 3] 2020년 연령별 청년 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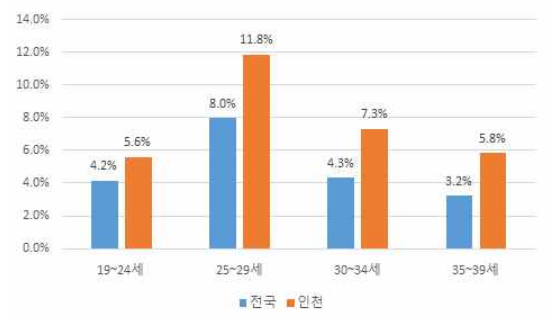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15년,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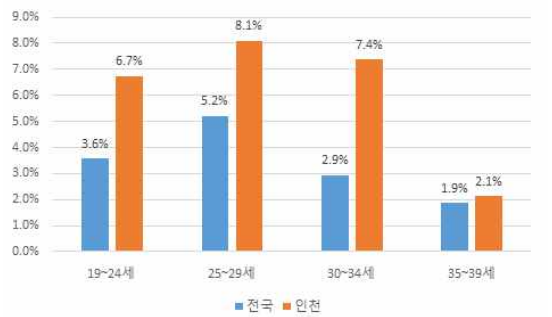
❑ 인천시 청년(19~39세) 실업률은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대에서 전국 대비 높음

- 인천시 청년 남성 실업률은 [그림 4]와 같이 전 연령대에서 전국 대비 높은 가운데 특히 25~29세, 30~34세에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인천시 청년 여성 실업률 역시 [그림 5]와 같이 전 연령대에서 전국 대비 높은 가운데 특히 34세 이하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그림 4] 2020년 연령별 청년 남성 실업률



[그림 5] 2020년 연령별 청년 여성 실업률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15년,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 기간제 근로자 현황 분석

❑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일제 일자리에서의 증가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청년들의 기간제 근로자 수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인천시가 16개 시도 중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9.5%)이었음. 반면 2020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17.3%)과 비슷한 수준(16.8%)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16개 시도 중에서 9번째로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단기 근로계약의 비중이 전국 평균 2015년 83.4%에서 2020년 85.6%로 2.2%p 증가한 가운데 인천시는 2015년 81.2%에서 2020년 88.4%로 7.2%p 증가함

[표 2] 지역별 청년(19~39세) 기간제 근로자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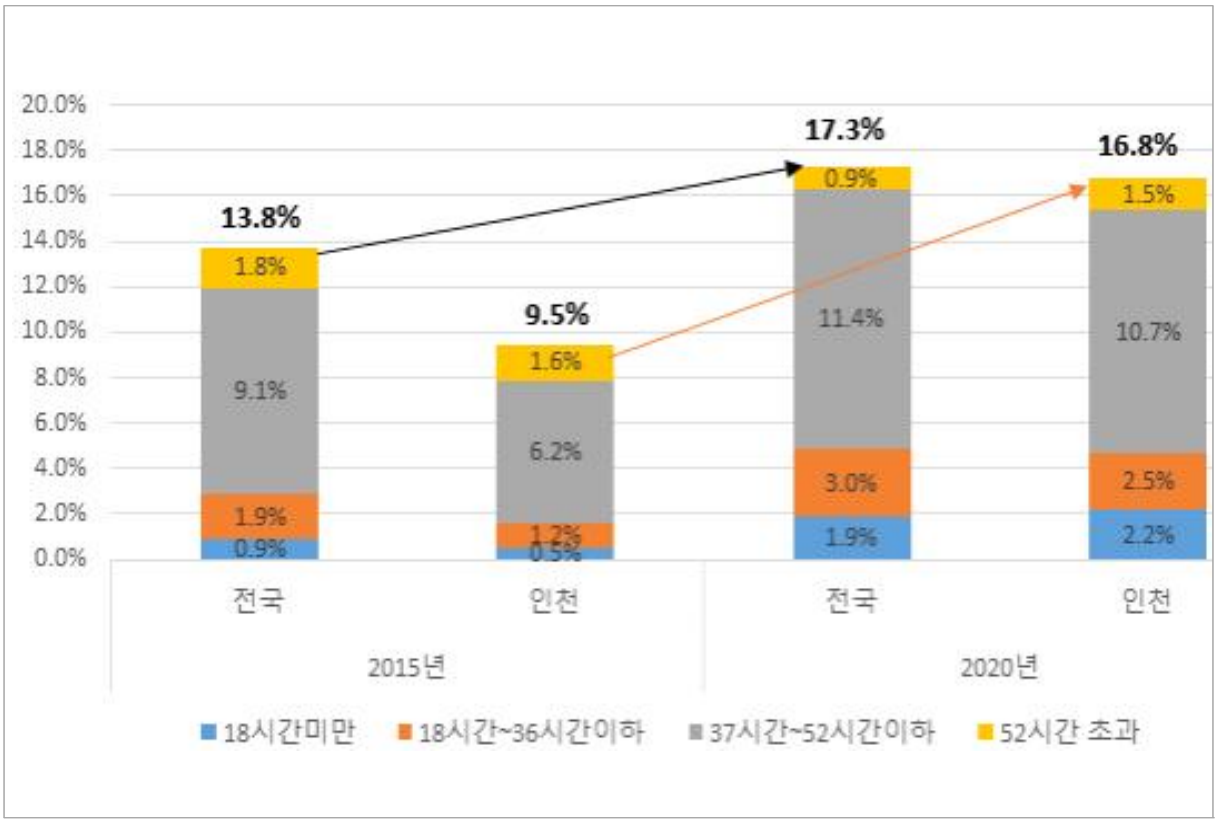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기간제 근로자 비율	순위	기간제 근로자 비율	순위		기간제 근로자 비율	순위	기간제 근로자 비율	순위
전국	13.8%	-	17.3%	-	경기	14.4%	7	19.6%	2
인천	**9.5%**	**15**	**16.8%**	**9**	강원	15.6%	4	16.9%	8
서울	13.7%	8	19.3%	4	충북	16.2%	3	14.3%	14
부산	11.3%	13	15.1%	11	충남	15.4%	5	13.9%	15
대구	8.1%	16	13.6%	17	전북	16.4%	2	19.0%	5
광주	11.5%	11	21.2%	1	전남	13.0%	9	13.8%	16
대전	21.6%	1	18.2%	6	경북	11.3%	12	16.7%	10
울산	11.2%	14	14.7%	13	경남	15.0%	6	15.0%	12
세종			17.0%	7	제주	12.7%	10	19.6%	3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15년,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 [그림 6]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현황을 근로시간별로 살펴보면 전일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37~52시간 이하의 근로자에서 전국평균 2.3%p 증가한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4.5%p 증가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 증가를 견인하였음

- 18시간 미만 일자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1%p 증가한 반면 인천에서는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제·기간제의 이중고를 겪는 일자리 근로자 비중이 전국 대비 인천시에서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전일제 근로자(36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2015년에는 계약직 일자리의 비중이 인천시에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적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거의 비슷(전국 12.3%, 인천시 12.2%)해진 것으로 나타남. 즉, 지난 5년간 인천시에서 청년의 기간제·전일제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였음

[그림 6] 연도별(2015년, 2020년) 근로시간별 청년(19~39세) 근로자 수 대비 기간제 근로자 수 비율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15년,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 근로시간 및 임금 현황

❑ 중졸 이하가 담당하던 장시간 근로의 상당 부분을 고졸 이상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은 감소하였음

-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2015년에는 중졸 이하에서 담당하던 52시간 초과의 장시간 근로를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에서 담당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52시간 초과 근무하던 중졸 이하 근로자의 비중이 2015년 20%에서 2020년 0.9%로 19.1%p 감소하였고 고졸 및 전문대졸에서는 각각 2.7%p, 6.5%p 증가하였음

[표 3] 인천시 연도별(2015년, 2020년) 청년(19~39세) 근로자의 교육수준별 근무시간 비율 현황

	근무시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합계
2015년	18시간 미만	0.8%	1.1%	0.6%	2.5%
	18~36시간 이하	1.3%	2.7%	1.6%	5.5%
	36시간~52시간 이하	3.8%	15.2%	17.4%	36.5%
	52시간 초과	20.0%	23.9%	11.6%	55.5%
	합계	**25.9%**	**42.9%**	**31.2%**	**100.0%**
2020년	18시간 미만	0.1%	2.6%	1.3%	4.0%
	18~36시간 이하	0.2%	2.3%	3.5%	6.0%
	36시간~52시간 이하	0.6%	14.3%	29.6%	44.5%
	52시간 초과	0.9%	26.6%	18.1%	45.6%
	합계	**1.7%**	**45.7%**	**52.6%**	**100.0%**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15년,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 청년들의 52시간 초과 근무 비중은 55.5%에서 45.6%로 9.9%p 감소하였고 36~52시간 이하 근무자 비중은 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전일제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은 2015년 대비 2020년에 감소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4]를 보면 인천시 52시간 초과 근무 비중은 45.6%로 전국 평균인 45.0%보다 여전히 높음

[표 4] 지역별 청년(19~39세) 근무시간 비율 현황(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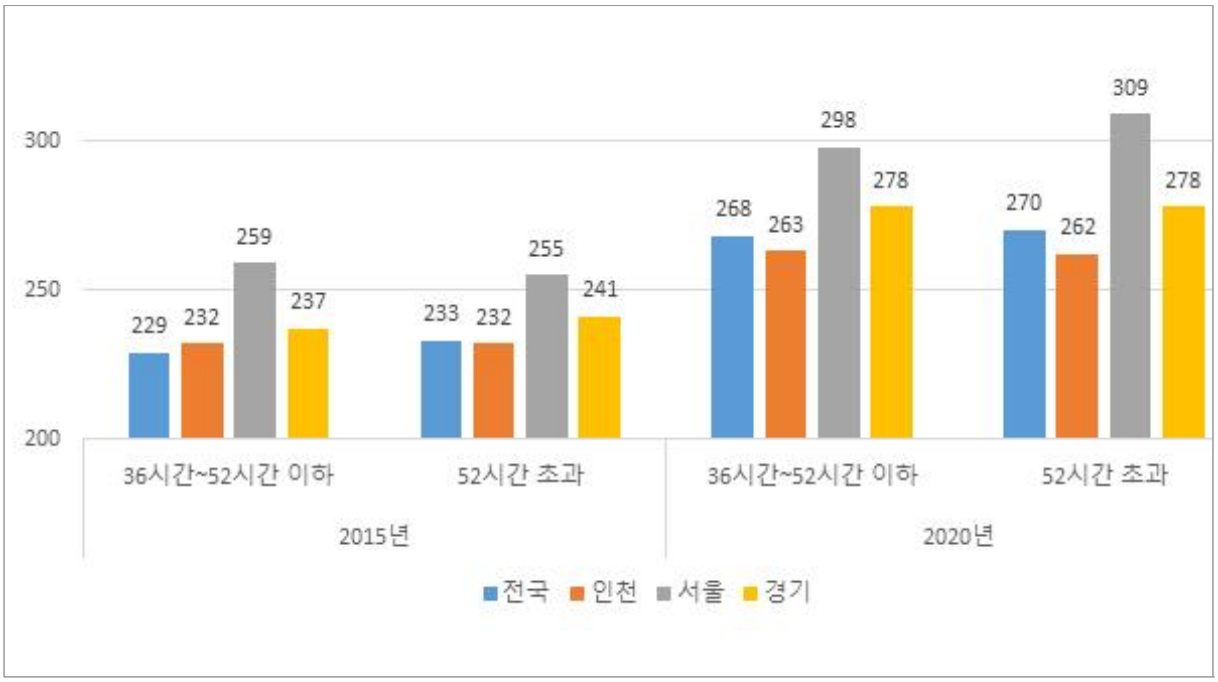
	18시간 미만	18시간~36시간이하	36시간~52시간이하	52시간 초과		18시간 미만	18시간~36시간이하	36시간~52시간이하	52시간 초과
전국	3.2%	6.4%	45.5%	45.0%	경기	3.5%	6.0%	47.8%	42.7%
인천	**4.0%**	**6.0%**	**44.5%**	**45.6%**	강원	3.2%	7.7%	43.1%	46.1%
서울	3.5%	5.9%	47.7%	42.9%	충북	2.7%	5.7%	48.4%	43.2%
부산	3.9%	6.8%	41.2%	48.0%	충남	2.7%	6.6%	45.5%	45.2%
대구	3.3%	5.7%	42.0%	49.1%	전북	2.3%	7.5%	42.5%	47.6%
광주	3.7%	6.5%	41.6%	48.2%	전남	2.3%	7.9%	47.5%	42.4%
대전	3.5%	6.1%	43.5%	46.9%	경북	2.5%	6.2%	44.2%	47.0%
울산	3.2%	5.8%	43.4%	47.5%	경남	2.4%	6.6%	44.7%	46.3%
세종	3.8%	5.9%	45.7%	44.6%	제주	4.3%	7.4%	42.8%	45.5%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 근로시간 대비 평균적인 급여 수준이 낮으며 특히 수도권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2015년 대비 2020년의 임금수준은 더욱 열악함

- 전일제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별 월평균 임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15년에 36시간~52시간 이하가 229만 원, 52시간 초과가 233만 원을 받았고 인천시는 36~52시간 이하에서는 232만 원을, 52시간 초과에서는 232만 원을 받았음. 이는 서울시(각각 259만 원, 255만 원)나 경기도(237만 원, 241만 원)의 임금수준보다는 낮음
- 2020년에는 전국평균의 임금수준이 36~52시간 이하 268만 원, 52시간 초과 27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각각 17%, 16% 상승하였음. 반면 인천시는 36~52시간 이하 임금 263만 원, 52시간 초과 임금 262만 원으로 2015년 대비 약 13% 상승함
- 2015년 대비 2020년 임금 상승률의 서울 및 경기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36시간~52시간 이하에서 서울시 15%, 경기도 17% 상승으로 인천시 13% 상승보다 높았고, 52시간 초과에서는 서울시 21%, 경기도 15% 상승으로 인천시 13% 상승과는 격차가 컸음. 즉, 수도권 타 지역은 인천시보다 전일제 청년들의 임금이 가파르게 증가함
-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인천시 전일제 근무 청년들은 2015년에도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2020년에는 격차가 더욱 커졌음. 전국평균과 비교하였을 때도 인천시는 전국평균 수준에서 전국평균 이하로 떨어짐. 이는 전일제 근로 인천시 청년들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적은 수준이며 점점 임금 격차가 벌어지며 열악해지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7] 전일제 청년(19~39세) 근로자 근로시간별 월평균 임금액 현황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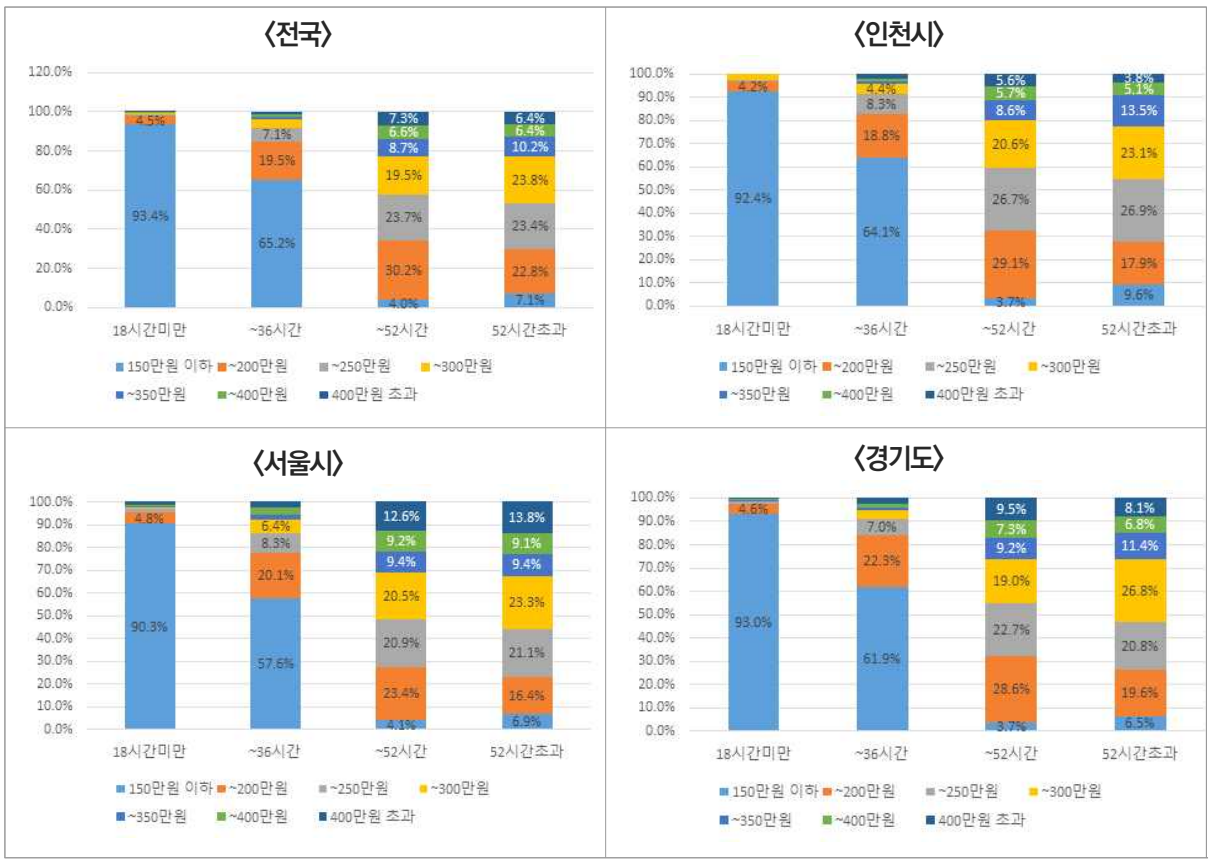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15년,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 장시간 근로-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높은 반면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낮음

- 18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들의 임금비중을 살펴보면 150만원 이하가 전국 평균 93.4%로 집계된 가운데 인천시는 92.4%가 150만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90.3%)와 비교할 때는 더 낮으나 경기도(93.0%)보다는 높은 비중임
- 18시간이상~36시간 미만 근로자에서 15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비중의 경우 전국(65.2%) 평균보다는 인천시(64.1%)가 낮으나 서울시(57.6%), 경기도(61.9%)보다는 각각 6.5%p,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분포하는 36시간 이상~52시간 미만 근로자의 임금 분포에서는 200만원 이하 임금 수령자의 비율이 전국(30.2%)보다 인천시(32.8%)에서 2.6%p 높음
- 노동자들 중 가장 근로시간이 긴 52시간 초과 근로자에서는 15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비중이 인천시가 9.6%로 전국평균(7.1%)이나 서울(6.9%), 경기(6.5%)보다 높음
- 즉,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의 비중은 전국 평균적인 비율보다 높아지고 고임금의 비율은 낮아지는 양상이며 특히 400만원 초과 임금 수령 비중은 전국 최하 수준임

[표 5] 지역별 청년(19~39세) 근무시간별 월평균임금 비율 현황(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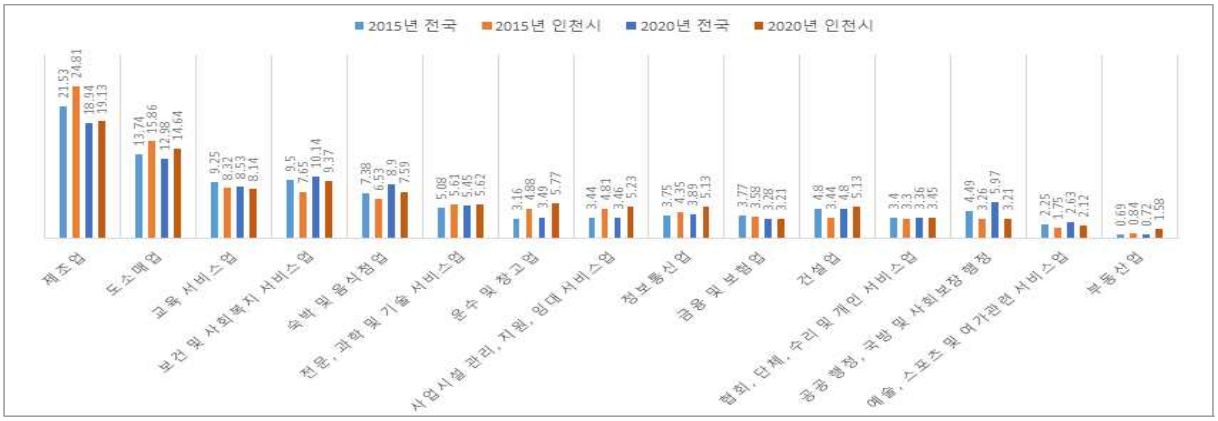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 청년 근로자 종사산업 비중은 제조업이 2015년~2020년까지 가장 높으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천시의 산업구조 변화는 전국 평균보다 빠르고 다른 양상을 보임

- 연도별 청년 근로자 종사산업 비율을 [그림 8] 같이 살펴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2015년~2020년까지 전국 및 인천시에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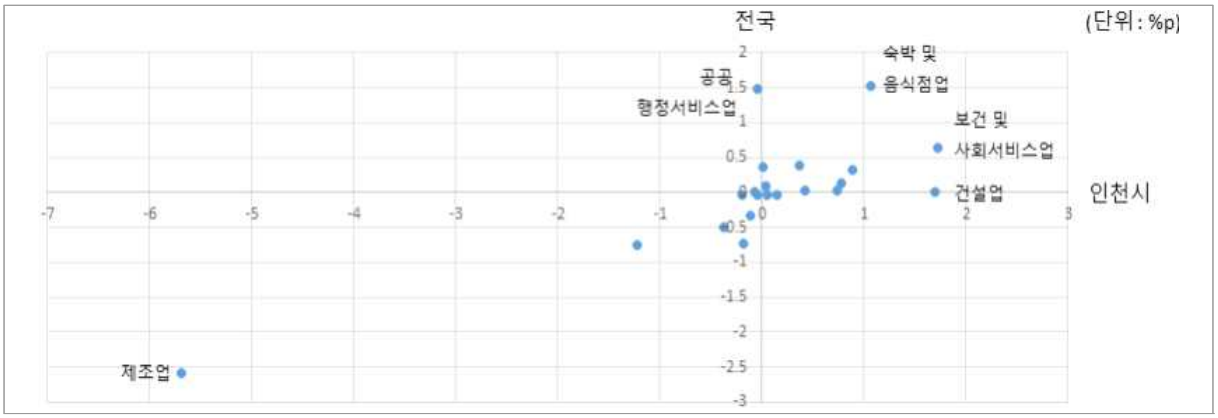
[그림 8] 연도별 청년(19~39세) 근로자 종사산업 비율 (단위: %)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 [그림 9]의 종사산업 비율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제조업 종사비중이 2.59%p 감소할 때, 인천시에서의 제조업 종사비중은 5.6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종사자 비중이 감소하였음. 이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산업 변화가 전국 평균보다 인천시에서 빨랐음을 의미함
- 청년들이 옮겨간 산업은 전국적으로 공공 및 행정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높았던 반면 인천시는 건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음

[그림 9] 청년(19~39세) 근로자 종사산업 비율 2015-2020년 증감 현황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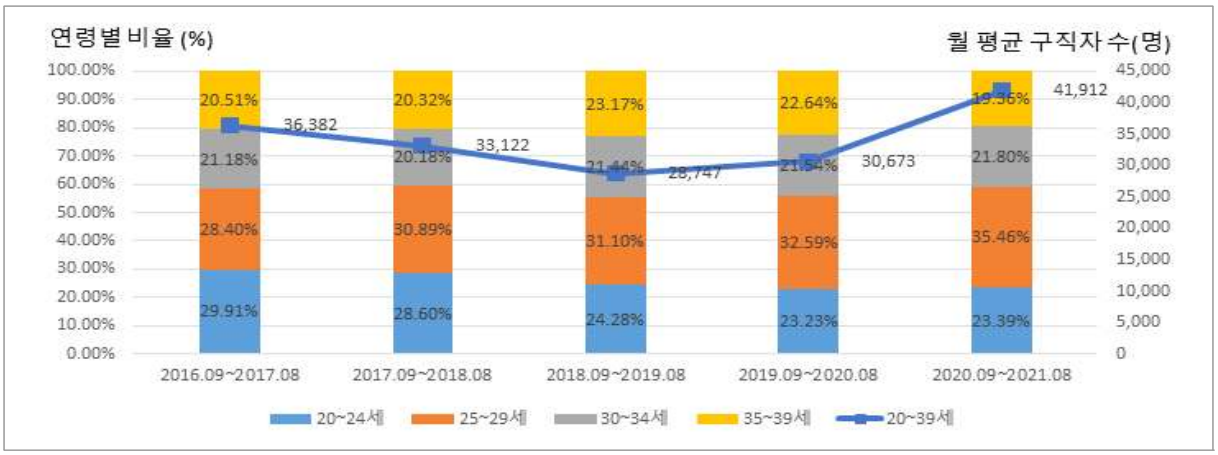
3 청년 구직 및 취업 현황

● 구직 주도 연령층

❑ 인천시 청년 구직자 수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0년에 매우 증가하였고 특히 25~29세의 구직자 비중이 높아짐

- 2016년 9월~2017년 8월까지의 구직자 수는 36,38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구직자 비중은 20~24세(29.91%), 25~29세(29.40%) 순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비중이 높음
- 그러나 2017년 9월~2018년 8월에는 25~29세 구직자의 비중(30.89%)이 20~24세 구직자의 비중(28.60%)을 상회하였으며 꾸준히 그 격차는 증가하여 2020년 9월~2021년 8월에는 25~29세의 구직 비중(35.46%)이 타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음
- 30~34세의 구직비중(21.80%)도 2020년 9월~2021년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남
- 즉 전반적으로 구직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첫 직장을 찾는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이 인천시에서도 발생함

[그림 10] 연도별 인천시 청년(19~39세) 구직자 연령별 비율 및 월 평균 구직자 현황



자료 : 워크넷 구인구직통계(2016.09~2021.08) 지역별 연령별 데이터, 저자 가공

● 취업 주도 연령층

❑ 신규취업자의 비중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0세 이상에서 증가하였고 재취득자의 비중은 25~29세에서 증가추세를 보임

- 고용행정통계의 피보험자 취득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취득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함

- 연령별로는 20~24세 비중이 감소한 반면 30세 이상의 비중은 증가함. 이는 신규 취업자의 연령대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인천시의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의 평균연령[1]은 2016년 33.2세에서 2020년 36.3세로 4년 새에 약 3.1세 증가함
- 재취득자의 경우 타 연령대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20~29세의 비중이 증가함. 재취득자의 평균연령은 평균적으로 42.7세에서 44.4세로 고령화 영향을 받아 증가하였지만,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29.6세에서 29.0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어린 나이에 이직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됨

[표 6] 인천시 기간별 청년층 연령별 고용보험 취득자수 현황 (단위 : 명,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규 취득자	18세~20세 미만	5,243 (20.7%)	5,158 (20.7%)	4,372 (17.1%)	6,114 (23.1%)	5,714 (21.4%)
	20세~24세 이하	12,297 (48.4%)	12,069 (48.4%)	12,666 (49.7%)	12,274 (46.5%)	12,215 (45.7%)
	25세~29세 이하	5,099 (20.1%)	5,065 (20.3%)	5,418 (21.2%)	5,170 (19.6%)	5,587 (20.9%)
	30세~34세 이하	1,634 (6.4%)	1,562 (6.3%)	1,790 (7.0%)	1,707 (6.5%)	1,923 (7.2%)
	35세~39세 이하	1,116 (4.4%)	1,093 (4.4%)	1,259 (4.9%)	1,156 (4.4%)	1,261 (4.7%)
	합계	25,389 (100.0%)	24,947 (100.0%)	25,505 (100.0%)	26,421 (100.0%)	26,700 (100.0%)
재 취득자	18세~20세 미만	2,390 (2.0%)	2,576 (2.1%)	2,456 (1.9%)	2,446 (1.9%)	2,192 (1.8%)
	20세~24세 이하	23,609 (19.9%)	25,068 (20.7%)	27,403 (21.3%)	27,161 (21.6%)	27,031 (22.1%)
	25세~29세 이하	32,123 (27.1%)	33,950 (28.0%)	37,527 (29.2%)	37,872 (30.1%)	39,417 (32.2%)
	30세~34세 이하	29,943 (25.3%)	28,452 (23.5%)	28,527 (22.2%)	27,117 (21.5%)	26,130 (21.4%)
	35세~39세 이하	30,279 (25.6%)	30,995 (25.6%)	32,742 (25.4%)	31,369 (24.9%)	27,476 (22.5%)
	합계	118,344 (100.0%)	121,041 (100.0%)	128,655 (100.0%)	125,965 (100.0%)	122,246 (100.0%)

자료 : 고용행정통계 피보험자 취득상실현황(2016~2020) 지역별 연령별 데이터, 저자 가공

1)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의 평균연령은 고용보험 취득상실현황 연별 지역별 연령별(5세) 자료를 이용함. 이때, 연령구간은 – 18세 미만, 18~20세 이하, 20~24세 이하, … (5세 단위) …, 70세 이상 – 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균연령을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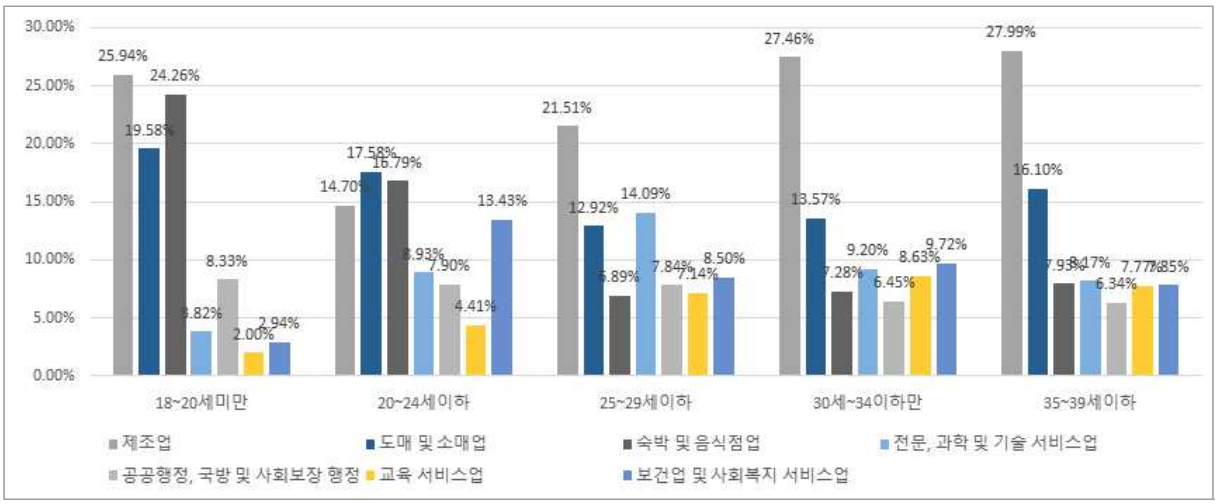
$$\text{평균연령} = \frac{(17 \times \sum_{age=0}^{17} \text{신규취득자수}_{age}) + (18.5 \times \sum_{age=18}^{19} \text{신규취득자수}_{age}) + (22 \times \sum_{age=20}^{24} \text{신규취득자수}_{age}) + \cdots + (67 \times \sum_{age=65}^{69} \text{신규취득자수}_{age}) + (70 \times \sum_{age=70}^{\infty} \text{신규취득자수}_{age})}{\sum_{age=0}^{\infty} \text{신규취득자수}_{age}}$$

⬢ 청년 주요 산업별 취업 및 실업 현황

❑ 신규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며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별로 산업 선호는 다르게 나타남

- 인천시 청년 중 신규취업자의 취업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취업하는 산업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그림 11]에 따르면 18-20세 미만의 경우 제조업(25.94%), 숙박 및 음식점업(24.26%) 순으로 높은 반면 20~24세 이하는 도매 및 소매업(17.58%), 숙박 및 음식점업(16.79%) 순으로 높음. 25~29세는 제조업(21.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4.09%) 순으로 나타나며 24세 이하에서 선호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 비중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음. 30세 이상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27% 이상으로 크게 증가함

[그림 11] 인천시 청년 신규 취업자의 주요 산업 현황(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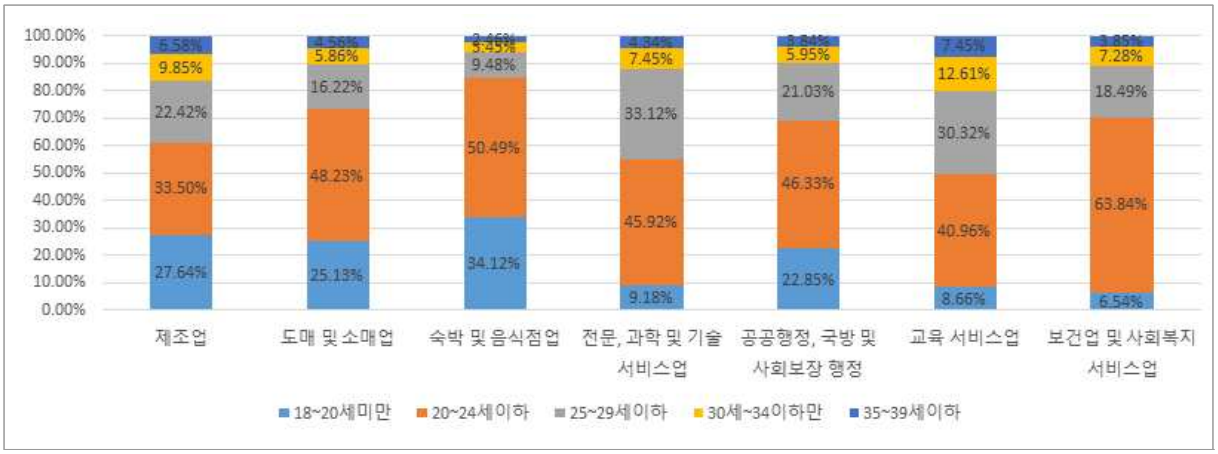


자료 : 고용행정통계 피보험자 취득상실현황(2020년) 연령별 산업별 취득상태별 데이터, 저자 가공
주 : 본 그래프에서 19개의 j산업에 각각 취업한 y연령대의 청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음.

$$취업비중_{j,y} = 취업인원수_{j,y} \;/\; \sum_{j=1}^{19} 취업인원수_{j,y}$$

- 이는 청년들의 선호와 산업에서의 연령대에 대한 선호가 맞물린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그림 12]는 각각의 산업에서 어떤 연령대를 가장 많이 채용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20~24세의 채용 비중이 높고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5~29세 이하의 경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에서의 선호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그림 11]과 [그림 12]를 함께 해석해 볼 때, 대체로 20~24세의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신규정원을 차지하는 가운데 연령대 산업별 선호도가 취업시장에 반영되어 있음

[그림 12] 주요 산업의 청년 연령대별 신규 고용 현황(2020년 기준)



자료 : 고용행정통계 피보험자 취득상실현황(2020년) 연령별 산업별 취득상태별 데이터, 저자 가공

주 : 본 그래프에서 19개의 j산업에 각각 취업한 y연령대의 청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음.

$$취업비중_{j,y} = 취업인원수_{j,y} \; / \; \sum_{y=18}^{39} 취업인원수_{j,y}$$

- [표 7]은 2020년 연말 기준 피보험자 수 대비 2020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수와 상실자 수 현황을 비율로 살펴본 것임. 전반적으로 18~20세 미만에서 신규취득자 수나 상실자수가 모두 피보험자 수 대비 많아 노동 회전률[2]이 높은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노동시장의 회전률이 낮아지는 것이 관찰됨
- 산업 중에서는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서비스에서 타 산업과 비교할 때 피보험자수 대비 신규취득자수와 상실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남. 이 때, 해당 산업이 취업률 또는 실업률을 견인했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서비스업의 높은 신규 취업자 비율은 노동시장 회전률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자리에 고용하는 연령대가 주로 24세 이하인 것([그림 12] 참조)으로 보아야 함. 즉, 공공에서의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전직 또는 이직이 잦은 일자리라는 것을 의미함
-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타산업 보다 높은 피보험자대비상실자 비율(d)로 인해 회전률(b+c+d)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피보자험대비재취득자 비율(c)로 인해 일자리가 회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회전률이 0.56으로 매우 낮으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함. 즉 취업해 있는 기존 인원 대비 실업이나 취업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비교적 제조업이 타 업종대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거나 근로자들이 타직장으로의 전직을 꺼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노동시장 회전률이란 취업상태에서 실직상태로 전환되는 비율과 실직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전환되는 비율을 더한 값으로 해당 산업에서 노동력이 얼마나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임.

[표 7] (2020년 기준)인천시 청년 피보험자수 대비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상실자수 주요산업 현황 (단위 : 명, 배)

		18~20세미만	20~24세이하	25~29세이하	30~34세이하	35~39세이하	18~39세이하
전체	피보험자수(a)	3,823	29,610	65,718	60,055	68,246	227,452
	피보험대비신규(b)	1.49	0.41	0.09	0.03	0.02	0.12
	피보험대비재취득(c)	0.57	0.91	0.60	0.44	0.40	0.54
	피보험대비상실(d)	1.499	1.07	0.62	0.45	0.41	0.59
	회전률(b+c+d)	3.56	2.39	1.31	0.92	0.83	1.25
제조업	피보험자수(a)	1,674	7,537	18,792	20,771	24,832	73,606
	피보험대비신규(b)	0.89	0.24	0.06	0.03	0.01	0.07
	피보험대비재취득(c)	0.10	0.15	0.12	0.10	0.09	0.11
	피보험대비상실(d)	0.65	0.63	0.43	0.34	0.30	0.38
	회전률(b+c+d)	1.64	1.02	0.61	0.47	0.40	0.56
도매 및 소매업	피보험자수(a)	667	4,575	7,695	7,298	8,298	28,533
	피보험대비신규(b)	1.68	0.47	0.09	0.04	0.02	0.16
	피보험대비재취득(c)	0.70	1.02	0.73	0.53	0.49	0.65
	피보험대비상실(d)	1.55	1.17	0.74	0.54	0.49	0.7
	회전률(b+c+d)	3.93	2.66	1.56	1.11	1.00	1.51
숙박 및 음식점업	피보험자수(a)	672	4,059	3,645	1,937	1,921	12,234
	피보험대비신규(b)	2.06	0.51	0.11	0.07	0.05	0.33
	피보험대비재취득(c)	0.87	1.25	1.05	0.84	0.81	1.03
	피보험대비상실(d)	2.38	1.67	1.26	1.00	0.96	1.37
	회전률(b+c+d)	5.31	3.43	2.42	1.91	1.82	2.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피보험자수(a)	96	1,760	5,461	4,704	4,973	16,994
	피보험대비신규(b)	2.27	0.62	0.14	0.04	0.02	0.14
	피보험대비재취득(c)	0.84	0.91	0.57	0.36	0.33	0.48
	피보험대비상실(d)	2.42	1.1	0.58	0.37	0.32	0.51
	회전률(b+c+d)	5.53	2.63	1.29	0.77	0.67	1.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피보험자수(a)	23	241	547	527	663	2,001
	피보험대비신규(b)	20.7	4	0.8	0.24	0.12	1.04
	피보험대비재취득(c)	5.83	5.61	2.63	1.81	1.70	2.50
	피보험대비상실(d)	23.43	9.06	3.4	1.95	1.7	3.37
	회전률(b+c+d)	49.96	18.67	6.83	4.00	3.52	6.91
교육 서비스업	피보험자수(a)	37	869	2,069	2,308	2,922	8,205
	피보험대비신규(b)	3.08	0.62	0.19	0.07	0.03	0.16
	피보험대비재취득(c)	1.22	0.88	0.78	0.63	0.58	0.68
	피보험대비상실(d)	3.22	1.03	0.85	0.68	0.57	0.73
	회전률(b+c+d)	7.52	2.53	1.82	1.38	1.18	1.5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피보험자수(a)	111	5,389	12,246	8,503	8,883	35,132
	피보험대비신규(b)	1.51	0.3	0.04	0.02	0.01	0.07
	피보험대비재취득(c)	0.95	0.70	0.50	0.42	0.42	0.49
	피보험대비상실(d)	1.39	0.64	0.52	0.45	0.44	0.51
	회전률(b+c+d)	3.85	1.64	1.06	0.89	0.87	1.07

자료: 고용행정통계 피보험자 취득상실현황(2020년) 연령별 산업별 취득상태별 데이터, 저자 가공

주: 피보험자수(a) : 2020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피보험대비신규(b) : 2020년 1월~12월까지 해당 산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수 / 피보험자수(a)
피보험대비재취득(c) : 2020년 1월~12월까지 해당 산업의 고용보험 재취득자수 / 피보험자수(a)
피보험대비상실(d) : 2020년 1월~12월까지 해당 산업의 고용보험 상실자수 / 피보험자수(a)
회전률(b+c+d) : 피보험대비신규(b) + 피보험대비재취득(c) + 피보험대비상실(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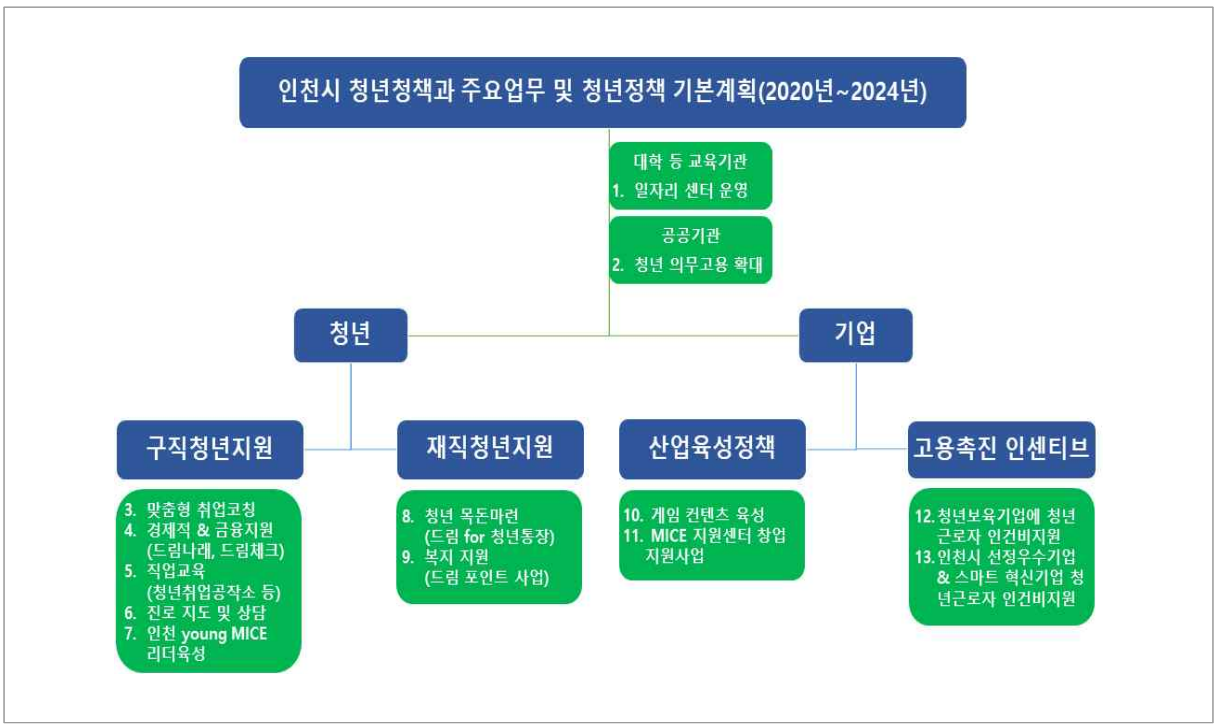
4 인천시 청년 고용정책 현황

● 청년 고용정책 기본방향 및 현황

❑ 인천시 청년정책과의 고용정책은 대학, 공공기관, 청년, 기업 대상 정책으로 구분 가능하며 대체로 미시적으로 특정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임

- 청년정책과의 주요 업무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본 현재 시행 중인 청년 고용정책은 13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및 대학, 기업을 통한 간접지원과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림 13]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현재 파악된 13개의 사업 중 9개의 사업이 구직기간의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업이고 2개의 사업이 구직 및 고용안정 모두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지원규모가 적으며 2개의 사업이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표 8] 참조)
- 구직 지원 정책들은 교육관련 사업과 직접적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구직기간의 금융지원정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미취업 청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반면 고용안정정책은 대체로 중소기업 또는 인천시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 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청년 생활비 보조, 목돈 마련 보조, 복지포인트 지원, 기업에 청년 인건비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그림 13] 인천시 청년 고용정책 기본방향 및 현황(2021.10현재)



[표 8] 인천시 청년 고용정책 기본방향 및 업무현황

No	사업명	단계	대상	사업내용
1	일자리 center 운영	구직	대학	고용노동부와 시, 대학이 협업하여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대학 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인천대, 인하대))
2	청년 의무고용확대	구직	공공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 할당 확대로 청년 실업해소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3	맞춤형 취업코칭	구직	청년	기업자와 구직자의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 쌍방 간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한 매칭(취업) 기회 증대
4	경제적 & 금융지원 (드림나래, 드림check)	구직	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금융지원을 통한 취업장려(면접비용 부담 해소)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5	직업교육 (청년취업공작소 등)	구직	청년	청년취업공장소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취업콘텐츠 제작 및 홍보, 교육생대상 취·창업지원서비스 제공
6	진로 지도 및 상담	구직	청년	직무중심의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 프로그램 지원 및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7	인천 young MICE 리더육성	구직	청년	영 마이스리더 모집 및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및 지역MICE 행사연계 프로그램 운영
8	청년 목돈마련 (드림 for 청년통장)	안정	청년	높은 생활비,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미래설계와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 제공 (3년간 1천만원까지 적립 지원)
9	복지 지원 (드림 포인트 사업)	안정	청년	중소제조기업의 신규 청년사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복지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 (120만원지원)
10	게임콘텐츠육성	구직	기업	게임인구의 저변확대로 문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e스포츠 등 게임대회 개회 및 지역연고 게임구단 지원)
11	MICE지원센터 창업지원사업	구직	기업	MICE 산업분야 자금 및 창업공간,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12	창업보육기업에 청년근로자 인건비지원	구직/ 안정	기업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거나 창업보육 기업에 취직한 청년근로자 인건비 (200만원) 지원
13	인천시 선정우수기업 &스마트혁신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지원	구직/ 안정	기업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및 인천 스타트업파크, 로봇 랜드,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입주기업에 취직한 청년근로자 인건비(200만원) 지원

자료 :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 2021년 주요업무계획(청년정책과)

5 청년고용 정책적 과제

● 인천시 청년고용 관련 향후 과제

❑ 인천시 청년고용 관련 향후 과제는 구직, 고용 및 실업, 기간제 근로자 이슈, 근로시간 및 임금 이슈로 정리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고용의 특징과 인천시 사업현황 등에 대하여 구직, 고용 및 실업, 기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및 임금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표 9]와 같이 향후 과제를 도출함

[표 9] 인천시 청년고용 특징 정리 및 향후 과제

주제	인천시 청년고용 특징	인천시 사업 현황	향후 과제
구직, 고용 및 실업	• 청년 평균 고용률은 높음 • 30대 이상의 고용률은 전국대비 평균 이하임	•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29세이하를 대상으로 함 • 일자리센터는 대학에서 운영함 • 진로지도 및 상담은 학생대상임 • 게임콘텐츠 육성 등의 사업은 대상연령이 불분명함 • MICE지원센터, 인천시선정우수기업, 스마트혁신기업 등 정책대상기업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지원 금액도 적음	• 인천시 조례상의 청년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려 필요 • 인천시 조례 범위에 포함된 청년에 대한 고용보조 필요 • 20대 중심의 구직 및 고용 보조정책의 확장 필요 • 정책사업의 대상연령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상범위와 지원금액이 적절한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재설계 필요
	• 구직주도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취업주도 연령층도 높아짐 • 이직하는 연령이 낮아짐 • 제조업 취업비율이 높으나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 노동회전률은 공공이높고 제조업이 낮음		
	• 실업률이 높음 • 남녀 모두 높고 특히 25~34세가 높음	• 목돈마련정책과 복지지원정책을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산업별, 연령별 세부적 분석을 통해 이직이 잦은 계층을 찾아내서 핀셋지원 해야함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비중 증가 •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비중의 증가폭도 평균보다 高	-	• 안정적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취업 매칭 후 일자리 유지를 위한 방안 필요
근로시간 및 임금	• 평균근로시간은 줄었으나 여전히 전국평균대비 높음 • 평균급여가 평균이하이며 지난 5년새 더욱 열악해짐 • 장시간근로-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고 고임금 비중은 낮음	-	•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한 급여 상승을 유도 • 장시간근로-저임금의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필요

❑ 인천시 청년 고용률 대비 30대 이상의 고용률이 낮은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인천시 청년 고용률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전국대비 높고 30대에서 전국대비 낮은 데 반해 청년의무고용 등의 정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하여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 대상 사업과 인천시 세부 현황 간 괴리가 있음. 향후 조례상의 청년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구직주도 연령층과 취업주도 연령층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일자리 센터나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제조업의 경우 특히 취업비율이 높고 노동회전률이 낮은 등 상대적으로 타 산업대비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산업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여서 이를 보완할 정책안을 도출이 필요함

❑ 실업률과 이직률이 높은 것에 비해 안정적 고용을 위한 정책안이 미비하여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신규 고용이나 취업이 매칭되더라도 실직하거나 이직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기간제가 복합된 일자리 비중의 증가폭이 높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안정적 일자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
- 반면 인천시의 목돈마련 정책과 복지지원정책 외 이러한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은 없는 상황이어서 세부적인 정책대상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안 마련이 필요함

❑ 청년층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장시간 근로 – 저임금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인천시는 수도권역의 일자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 저임금 노동은 결국 경력이 쌓이면 타 지역으로 이직, 이사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실제로 인천시 청년들은 쉽게 이직하고 실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그러나 인천시의 사업은 미시적으로 청년을 지원하고 있어 노동환경 개선, 노동생산성 증대 등에 대한 사업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참고문헌

[논문]

남재량(2018),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요셉(2019),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KDI정책연구시리즈

[보고서]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각 년월, 구인구직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각 년월, 고용행정통계

인천시, 2021, 2021년 주요업무계획(청년정책과)

인천연구원, 2020,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웹사이트]

고용행정통계, http://eis.work.go.kr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mdis.kostat.go.kr


THE
INCHEON
INSTITUTE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이용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